

제33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Cosmic Humanity and Public Practice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2014년 9월 18일(목) ~ 9월 26일(금)

경희대학교



PEACE BAR FESTIVAL 2014
Cosmic Humanity and Public Practice

초 대

경희대학교가 제33회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eace BAR(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 Festival 2014를 개최합니다. 세계평화의 날은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UN이 제정, 선포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선포를 기념해 매년 개최해온 Peace BAR Festival이 올해로 33회를 맞았습니다.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Cosmic Humanity and Public Practice)이란 주제와 함께 그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인류의 무한한 상상과 함께 자신의 앞날을 열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실천적 과제와 함께 새 시대가 요청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셔서 ‘우주 속 인간,’ ‘문명 속 공적 실천’의 의미를 나누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 인 원



취지

우주의 ‘빅 히스토리’에서 인류의 ‘빅 스토리’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근대 이후, 과학의 탐구정신이 문명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과학 혁명이 정치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산업 문명이 절정을 구가하고 있지만, 인간은 존엄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회는 ‘위험사회’로 치달고 있다. 지구촌은 정의, 평등, 평화와 같은 보편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채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대표되는 생태계 위기가 겹쳐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상상과 발견은 학문의 권리이자 의무다. 불확실성을 희망의 근거로 전환시켜야 한다. 문명사적 대혼란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전환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빅 히스토리(big history)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광활한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의하고, 함께 빅 스토리(big story)를 써나가야 한다.

불확실성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집단 지성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빅 히스토리를 창출해야 한다. 경희대학교가 제33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의 대주제를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Peace BAR Festival은 국내 최초로 우주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경희의 우주과학 역량과 함께 막을 올린다. 공모전을 시작으로 PBF 2014 심포지엄, 천문대 공개 관측회, 개회식과 라운드테이블,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북토크가 펼쳐진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해는 1981년 경희대가 제안하고 유엔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되었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대회(IAU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제6차 총회에서 조영식 경희대 총장은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유엔에 전달했고, 유엔은 그 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문(Resolution 36/3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 산하 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엔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의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해가 제안되던 무렵,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상대 국민을 향해 신년 평화의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전달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PEACE BAR FESTIVAL 2014
Cosmic Humanity and Public Practice

개 관

개회식

천문대 공개 관측회

PBF 2014 심포지엄

학생 및 직원 공모전



라운드테이블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북토크



프로그램

8월 21일(목) ~ 10월 19일(일)		학생 및 직원 공모전	온라인
9월 18일(목)	15:00~17:00	PBF 2014 심포지엄 (서울캠퍼스)	서울 청운관 B117호
		개회 축사 패널 발제 및 토론 I 질의응답 패널 발제 및 토론 II 질의응답	
9월 21일(일)	19:00~22:00	PBF 2014 심포지엄 (국제캠퍼스)	국제 중앙도서관 르네상스홀
		개회 축사 COSMOS: A Spacetime Odyssey 시청 기조 발제 패널 토의 종합 토론	
9월 21일(일)	19:00~22:00	천문대 공개 관측회	국제 천문대

9월 22일(월)	13:30~14:20	개회식 개회 세계평화의 날 개관 축하 영상 메시지 축사 환영사 축하공연	국제 예술·디자인대학 A&D HALL
	15:00~17:20	라운드테이블 패널 토론 질의응답	국제 예술·디자인대학 A&D HALL
9월 25일(목) ~ 26일(금)	10:00~18:00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서울 녹원법과대학 401호
9월 26(금)	15:00~16:30	북토크	서울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

· 행사 전 일정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웹캐스트됩니다.(www.khu.ac.kr/webcast)
 행사 홈페이지 <http://pbf.khu.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NIV, www.facebook.com/KHUPBF



개회식

제33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4 개회식은 예년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인간과 문명을 새롭게 조망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순서를 갖는다. 올해는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 경희의 '빅 스토리'를 써나가고록 했다.

일 시 2014년 9월 22일(월) 13시 30분

장 소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A&D HALL

개회 세계평화의 날 개관	손재식 전 평화복지대학원장
축하 영상 메시지	반기문 UN 사무총장
축사	이호진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 CEO H.E. Hilton Anthony DENNIS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환영사	조인원 총장
축하공연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 밴드

사회 정종필 미래문명원 부원장



라운드테이블

우주, 인간, 문명: 우주관을 통해 본 인류의 미래

Cosmos, Humanity and Civilization:

The Future of Humankind through a Vision of the Universe

우리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캠퍼스 별 심포지엄(9.18)과 내용적으로 연계되는 PBF 2014 라운드테이블은 '우주, 인간, 문명 : 우주관을 통해 본 인류의 미래'을 주제로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또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인간과 문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동양과 서양의 우주론이 만나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인간관이 대화를 나누는 '융복합 학문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15시

장소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A&D HALL

패널 토론	좌장	도정일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패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공학과 교수
		이동욱	경희학원 이사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민웅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성수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교수
		이문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용석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질의응답			

사회 정종필 미래문명원 부원장



학생 및 직원 공모전

이번 Peace BAR Festival은 심포지엄, 북토크 등 관련 행사 못지 않게 경희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학생 및 직원 공모전은 공모 대상뿐 아니라 참여 방식(장르)도 창의적으로 확대했다. 우주적 시야를 갖는 것은 구성원 개인은 물론 대학공동체의 도약발전에 필수적 요건이다.

일 시 2014년 8월 21일(목)~10월 19일(일)

접 수 온라인

대상	경희대학교 대학(원)생 및 전 직원
분야	글쓰기 및 영상(동영상, 사진)



PBF 2014 심포지엄

서울과 국제캠퍼스 교수진이 PBF 2014의 대주제를 놓고 '학제간 토론'을 벌인다. 인문학과 자연과 학이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열린 대화'를 펼치는 캠퍼스 별 심포지엄은 융복합 학문의 지평을 여는 기초 작업인 동시에 더 나은 대학 건설을 위한 생산적 담론을 창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15시

장 소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COSMOS '삶'을 만나다	개회	
	축사	한균태 서울 부총장
	패널 발제 및 토론 I	권영균 물리학과 정용석 생물학과 정지호 사학과
	질의응답	
	패널 발제 및 토론 II	김은성 사회학과 고인환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충형 철학과
질의응답		사회 정지호 사학과

사회 이영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장

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15시

장 소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르네상스홀

우주와 인간	개회	
	축사	이승한 국제 부총장
	COSMOS: A Spacetime Odyssey 시청	
	기조 발제	김갑성 우주과학과
	패널 토의	김진용 응용수학과 박경모 생체의공학과 전중환 후마니타스칼리지 홍명희 프랑스어과
	종합 토론	

사회 허균영 융합교육센터장



천문대 공개 관측회

국내 최초로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경희의 우주과학이 천문대 공개관측회와 함께 PBF 2014의 막을 올린다.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은 물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천문대를 공개, 우주에 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북돋운다. 우주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진다.

일시 2014년 9월 21일(일) 19시

장소 국제캠퍼스 천문대

프로그램

- 주망원경 및 초소형 인공위성(CINEMA) 견학
- 소형망원경/반사망원경을 통한 성운, 성단 관측 및 자유관측
- 천문대장과 함께하는 우주이야기
- 천문·우주과학 영상물 상영
- 이동형 천체 투영기를 통한 가상우주 탐험 체험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Post-2015: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이룰 수 있는가?

UN 고등교육 활성화 기구인 UNAI 소속 국내 대학 재학생과 관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통한 세계의 평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친다.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모색하고,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을 영상 메시지 형태로 제작해, 이를 UN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일시 2014년 9월 25일(목)~9월 26일(금)

장소 서울캠퍼스 녹원 / 법과대학 401호

9월 25일(목) 14:00~18:00	작은 평화한마당	공정무역 제품 판매 미니콘서트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평화 메시지 제작	서울 녹원
9월 26일(금) 10:00~17:30	개회식	학생 기획단	서울 법과대학 401호
	특강 I	이태주 ODA Watch 대표	
	특강 II	어윤일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원탁토론	학생 팀별 토론	
	좌담	이태주 ODA Watch 대표 어윤일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박명혜 한국국제협력단 민관 협력팀 홍문숙 (사)글로벌발전연구소 양동권 (사)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북토크

서울과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학생들의 자율적 공부모임 아레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PBF 2014 대주제와 관련된 영상 및 저서를 함께 읽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적 맥락에서 인간과 세계를 재정의한다. 도정일 대학장의 특별 강연에 이어, 대학장과 학생과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북토크는 경희의 독서문화를 이끄는 새로운 아이콘이다.

일 시 2014년 9월 26일(금) 15시

장 소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

대우주의 서사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개회	
	특별강연	도정일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토론	김낙우 물리학과 교수 임초영 경제학과 재학

사회 이정희 미술대학 재학



국제회의의 연혁

경희대학교는 1981년 제36차 UN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국제회의의 역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 1988 동북아시아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 1991 신국제질서: 21세기 탈이데올로기의 세계
-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 1994 도덕과 인간성회복
-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회복
-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 2001 문명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2009 경희평화워크숍
-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 2011 몸과 재양: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2012 인간, 정치, 문명
-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Peace BAR Festival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Peace BAR Festival은 국내 최초로 우주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경희의 우주과학 역량과 함께 막을 올린다. 공모전을 시작으로 PBF 2014 심포지엄, 천문대 공개 관측회, 개회식과 라운드테이블,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북토크가 펼쳐진다.

